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시흥시를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한 국내의 투자 약 8조 원, 고용 유발 13만 명, 부가가치 유발 9조 원 등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는 특별경제자유역을 말한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국내의 투자 약 8조 원, 고용 유발 13만 명, 부가가치 유발 9조 원 등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광주 발전

유발 10조3000억 원, 고용 유발 5만 7000명, 부가가치 유발 3조2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준비한 시간을 봤을 때 이번에 지정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과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많은 행정 절차와 평가 등으로 긴 시간이 요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빠른 시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와 관세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각종 인프라 구축비용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입주 기업에 대해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성과가 좋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성과가 부진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특별도 중단된다.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울촌3산단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된 예다.

이번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에 지

정된 구역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 기반조성과 기업 유치와 같은 부분에서 이미 조성되었거나 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보면 과거엔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잠재된 지역경제의 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기지경된 경제자유구역 성장에 한계에 봉착되어 있어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의 기업 구분 없이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었다. 국내 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 투자 기업 세제 혜택도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러한 변화된 정책의 방향은 국내외 혁신형 기업 비즈니스 거점 육성, 일자리 진화형 사업생태계 조성,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표되는데 광주시가 밝혀 온 노사 상생의 기업 환경, 혁신 인프라, 미래산업 육성 지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자유구역의 변화된 방향성에 따라 광주는 현재 상황과 부합하면서도 새롭게 추구하는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 성장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AI,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혁신 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의 고도화와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앵커 기업 투자 유치 촉진,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인 혁신 주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의 기업 투자 유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로는 광주형 일자리라 불리는 지역 주도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확산 그리고 국가 주도 미래 전략산업인 AI 기반 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발표처럼 광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국내의 기업의 산업 집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2024년 이후부터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한 미래형 산업 중심으로 광주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산업지구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첨단 광주 이미지의 제고도 함께 기대한다.

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공간 혁신으로 도시 경쟁력 향상을



김향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40년의 미래 지향적 광주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이 출발선상에 서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다.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1981년 도입됐는데,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을 수용하면서 20년 단위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따라서 앞으로 20년간 광주의 인구, 경제,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광주 시민들의 바람을 수렴해 미래 도시 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20세기 산업화의 과정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은 경제 개발과 도시 건설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개발 지

향적이었다. 도로, 철도, 공항을 비롯한 도시 기반 시설, 공장 용지를 위한 산업단지,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개발 사업 등 개발 시대의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기본적 인프라가 이미 완비됐고, 경제 성장으로 국민의 요구 수준 역시 높아졌다.

여기에 인구 저성장, 장기적 경기 침체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하드웨어와 성장 일변도의 도시기본계획은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양적인 도시 성장 시대에서 벗어나 질적인 도시 혁신 시대로 진입해야 할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할 것이다. 일찍이 마이클 포터 교수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 투입 요소 자체가 아니라 투입 요소의 질적 조건과 교육 시스템, 연구 개발, 기술 혁신 등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도 계획 체계의 도약과 역할의 질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 고도화와 인공 지능의 시대에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핵심적 사항은 '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이다.

도시의 생애 주기, 산업 구조의 전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불거져야 할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도시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21세기 도시에 필요한 새로운 첨단 도시 기능을 도입하고, 신산업 기능에 필요한 시설을 개발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나 볼티모어의 이너허브 그리고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 재생을 통한 혁신 거점 조성은 방치됐던 도심 쇠퇴 부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공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 혁신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도시 재생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 재생 혁신 지구'를 새롭게 도입, 대도시의 쇠퇴한 중심 업무 지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이러한 도시 혁신 거점을 발굴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고, 도시 재생 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별개로 수립돼 상호 연계성이 약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도시 재생과 연계한 도시 구조의 기본 방향 제시가 미비했다. 또 도시 재생 전략 계획에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압축적 도시 구조 전략이 도시기본계획의 확산적 도시 개발 전략으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번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히 중앙 정부의 계획 지침을 따르거나 기존의 관행적인 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20년 동안 광주의 도시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공간 혁신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하고 창조적이며, 도시 재생 사업과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돼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병택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 회장·전남대 교수

대학 교정의 붉은 향상 활기차다. 캠퍼스 곳곳에 꽃이 피고 새내기들의 긴장되지만 활달한 모습이 넘친다. 대학 교수들이 언제까지나 이팔청춘인 줄 안다고 안팎에서 핀잔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올해는 전혀 달랐다. 방학이 끝난 지 벌써 세 달이 지나 종강이 머지않았는데, 교수들은 익숙하지 않은 영상 강의,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한산한 캠퍼스에 신록의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이 쓸렁하기까지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일상의 큰 변화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이전의 생활로 완전히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그만큼 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

의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할 시점이다.

코로나 이후와 관련하여 많은 담론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두 가지 추세를 주목하고 싶다. 첫 번째로 언택트(tact) 사회의 도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여서 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온라인 금융과 온라인 구매는 물론 온라인 회의, 온라인 수업, 온라인 면접, 심지어 랜선 화식에 랜선 공연까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가르치고 일하고 노는 방식, 그리고 의료와 사법 시스템, 에너지와 교통 체계 등 우리 사회와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들에서 언택트가 일상화되면 삶의 형태가 혁명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추세이다. 이는 국제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즉 국가 간 역할 배분을 통해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협업 체계의 약화에서 시작된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 간 신뢰가 약화되고 각자도생의 자국 중심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제조업 거점인 중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

리면서 중국 외부에 추가로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위 '차이나+α', 생활이나 산업의 필수 품목을 본국에서 자체 생산하기 위한 기업의 본국 회귀 등 기존 국제 간 협업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먹고, 입고, 놀고, 일하고, 가르치는 모든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디지털 문명과 인공지능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되고 미·중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맞물리면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하며 기회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이를 피해 현재의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위기에 맞서 정보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나라 살림을 되살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닦았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코로나 팬데

믹 와중에도 편리한 화상회의 플랫폼을 제시하여 2억여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았고, 세계적 관심을 끄는 기업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속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해 높은 시민 의식과 헌신적 보전 시스템, 빠르고 적절한 정책으로 자랑할 만한 결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을 이끌어 우리의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국가 균형 발전을 강화하고 리소어링을 지원하며, 온라인 문화를 장려하고,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문화를 확대하며, 4차 산업혁명을 정착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방역 능력을 또 다른 경쟁력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관련 정책들이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의지와 정책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변화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행착오와 갈등이 있겠지만,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후세들에게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社說

주말에 9명이나...지역사회 감염 비상 걸렸다

어제와 그제 광주와 전남에서 아홉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사회 감염 일곱 명과 해외 유입 두 명 등이다. 이중 지역사회 감염으로 그제 광주와 목포에 사는 60대 자매 부부와 10대 손자, 지인 등 일곱 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첫 확진자는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였는데 지난 24일부터 발열·기침·오한 등의 증상을 보였다. A씨는 그제 광주와 목포에 사는 60대 자매 부부와 10대 손자, 지인 등 일곱 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지난 23일 방문한 동구 소재 사찰의 60대 스님 C씨와 A씨의 지인으로 지난 24일 한방병원을 함께 방문했던 D씨도 같은 날 확진됐다. A씨 접촉자 중 목포에 거주하는 언니 E씨와 언니의 남편 F씨, 10대 손자 G군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3일 광주 동구 A씨의 집을 방문해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이로써 광주·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어제 해의 입국자 두 명을 포함해 광주가 38명, 전남은 24명으로 늘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지난 2월 3일 광주·전남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발생 규모로는 가장 많다. 특히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최초 감염원 파악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방역 당국이 애를 태우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확진자 일부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 이후에도 병원이나 학교·시장·종교시설·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을 돌아다니는 등 주변과 밀접 접촉한 점이다. 자칫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를 차단하려면 전파 경로 파악과 밀접 접촉자 추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역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무더위 속에 느슨해지기 쉬운 개인 방역 의식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에 총력을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범도민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도와 시민 사회단체 등은 지난주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상원·마삼석 의과대학 설립 민간유치 공동위원장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유치 결의를 다졌다. 한상원 공동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우리 전남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1990년 정부에 처음으로 의대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로부터 30년 만이다. 전남은 아직까지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의대 신설이 무산된 결정적 원인으로서는 대한사회회의의 반대를 꼽을 수 있다. 첫 관문인 의대 정원 증원

단계에서부터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간 동결됐다.

따라서 의대 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1차 관문을 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한사회회의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이 뜻하지 않게 전남권 의대 유치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전망도 있다. 공공의료 가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처는 안 된다.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처는 물론 정주 여건 약화와 자본 역의 유출 등을 불러와 전남을 더욱 낙후되게 만들고 있다. 30년 전남 지역의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無等鼓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미국 남부연합 장군 '앨버트 파이크',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 골'. 이들은 그동안 '위인'으로 불리며 추앙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 가지 공통점이 불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중경받아야 할 이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는 바로 '인종차별'에 관련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5월 25일 미국에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이들 유명 인사의 동상이나 기념비는 시위대들의 조롱감으로 전락했다.

위인들의 추락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일단 관련 정보를 순식간에 전 지구촌에 퍼뜨릴 수 있는 '인터넷' 때문이라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의 진화(進化)'가 지구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해석이 더 타당할 듯하다. 특히, 이들 인물을 오랫동안 떠받들어 온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한순간에 외면하

고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과 과정이 보다 정교해지고 유연해졌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구촌을 단일한 시공간으로 묶어 내는 인터넷의 존재 역시 '시민정신의 동시 진화'를 이끌어 내면서 지구촌 공동의 시대정신을 만들어가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에 경계 지쳐서 떠나는 현상 역시 시민이 정보 유통에 직접 참여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자신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비교·점검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해관계'를 등 뒤에 감춘 '정치권'의 요구대로 '보수'와 '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엔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정치판에서 만들어진 프레임 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의미다. 이제 진보·보수라는 '정치 프레임의 종언'을 선언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